

사설

갈 길 바쁜 한국불교

99년 한해, 아니 20세기라는 한 세기가 지금 막 마감하려 하고 있다. '마감'이라는 단어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엇'의 시작을 예감한다. 그러나 한국불교계로서의 그 시작은 지난날의 철저한 반성과 참회를 바탕으로 자기변신 없이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지금 한국불교계 자화상을 그리자면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교단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어야 할 승가는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끝없는 분쟁과 폭력으로 사회의 지탄과 조소를 감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총무원장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분쟁 당사자간 근본적인 화해의 기약은 없어 보인다.

교단의 기둥이 이렇듯 흔들리면 교단의 제1인물 수행과 포교를 위한 백년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이를 어떻게 일심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분쟁의 씨앗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얽히고 설킨 악연들과 이를 은근히 이용하고 부추겨온 여러 불교 외적인 요인들에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0월 서울지법의 총무원장 부존재 관결과 총무원장 직무대행 선임은 한마디로 세속의 권위가 불교종단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예증이다. 이는 그동안 권력에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갈라치면 세간법에 의탁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승가의 엄보가 아닐 수 없다. 이점 승가의 반성과 화해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다분스러운 것은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 체제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한국불교가 갈 길도 바쁘다. 우선 상처받은 불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가승들의

의 출가정신 회복을 제 1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승가의 존엄성 회복과 시대를 이끄는 불교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새천년은 서력(西曆)의 역사기록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세계가 서력기원 기념속에 하나로 묶여 맹목적으로 달려온 상국의 사상, 인간의 이기심만 끝없이 부추겨온 그 문명폐해의 치유에 불교가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천년의 서양사상을 반성하는 목소리 가운데 새천년, 마음의 시대를 열 새로운 열쇠가 불교안에 있음을 예견하는 소리 또한 높다. 그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한국불교를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서구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의 톱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는 조계종의 미국인 승려 현각스님이 쓴 책 <만행, 허버트에서 화제사까지>가 이를 증거한다.

한국불교는 이제 국내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삼아 서구인들의 목마름에 화답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몇몇 눈 밝은 스님들이 일찍부터 서구사회로 진출, 개인적으로는 부신 포교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같은 개인적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종단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는 종교간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했으나 종교교류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불교권에 대한 타종교의 공격적 확장 추세가 그중 하나다. 이에 대한 불교권의 방어가 부실하다면 새천년 세계는 또다시 상국의 사상으로 괴로워해야 한다. 한국불교가 하루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불구 전통사찰 농지취득 또 불허

실상사등 신청에 농림부 자의적 법해석 "취득불가"

농림부가 또다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불허함에 따라 조계종과 정부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농지과는 10일 실상사 위봉사 통학사 정계사 등 4개 사찰의 농지취득 신청(2만8천여평)에 대해 기존 농지과도 귀농귀교 실습 가능 또는 휴경 등의 이유로 불허 조치했다. 그러나 위봉사가 신청한 일부(2천1백여평)만 취득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원은 "종단과 농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관과 협의해 전통사찰에 한해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농지과장이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농지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정부와의 관계정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농지법 시행규칙을 고쳐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포함시켰다.

농림부가 또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을 불허하자 조계종 재무부 재정국장 성효스님 등은 13일 농림부를 항의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농림부 농지과장은 "실상사 등의 경우 현재 농지과도 귀농귀교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취득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효스님은 "필요농지는 사찰에서 결정할 사안인데도 농지과에서 규정에도 없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항의했다. 조탁동 재정과장은 "실상사에서 취득하

려는 농지는 주지 도법스님 명의로 돼있는 등기를 실상사 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신청 농지는 이미 귀농귀교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상사 이외의 사찰에서 취득신청한 농지도 모두 주지 또는 연구자 명의로 등기된 것을 사찰 소유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담보성과 농지과의 불허에 대한 반박문을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 모임에서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만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성효스님이 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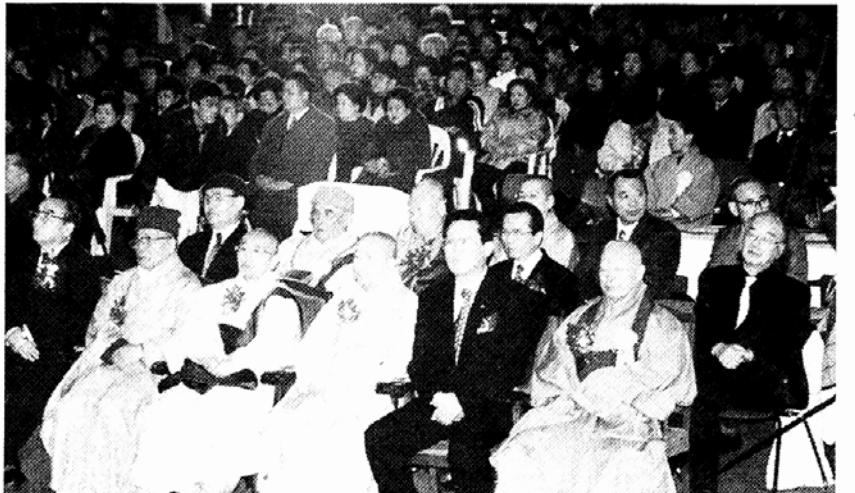
정대-월하스님 통도사 만남

정변전서 30여분 대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정화개혁신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월하스님이 14일 새벽 통도사에서 만났다. 정대스님은 이날 신해년의 안배로 통도사 정변전서에서 월하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대스님을 수행했던 사자 차장 지장스님은 "정대스님이 스승인 월하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통도사를 방문했다"며 "두 분이 30분 가량 얘기를 나눴는데 간간히 큰 웃음소리가 방장실 밖까지 들렸으며, 정대스님이 방장실을 나올 때 월하스님도 문밖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대스님의 말이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한불종 '불자화합 대축제'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문홍주)는 1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올림픽공원 관상경기장에서 각 종단 대표와 신하 65개 재가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자화합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식전 행사로 김득기 공연과 사물놀이, 1부 행사로 신임회장인 문홍주 前교무부장관의 취임식과 법요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 불자 연인들이 출연한 가운데 기요와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TV 사장에 주양자씨

불교TV 이사회는 14일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31차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사장에 주양자 前보건의복지부장관 후보를 선임했다.

불교TV는 이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혜성(도선사 회주)스님과 주양자씨를 선임 이사로 선출한데 이어 선정(前 조계종 총회위원장) 현호(법륜사 회주) 철웅(前 마곡사 주지) 혜정(일승총무원장) 무진(원효총무원장) 남현(前 불교TV 전무스님) 허문도 前사장 등 7명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로써 등기이사는 총 27명(감사포함)이 됐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TV 경영정상화를 위

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대해 격렬한 논의를 있었다.

한편 출석이사 5명과 위임 9명 등 총 13명의 이사가 참석하고 조계종 문화부장 일철스님도 자리한 이사회에서는 2시간 여 마라톤 회의로 진행돼 주양자 前장관의 이사명임을 결의하고, 안건으로 채택됐던 자본감소의 건은 다음회기로 미뤘다.

주양자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경북고교와 서울대 의대를 거쳐 보건의복지부장관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을 지냈다. 또 한국여의사회장과 국립의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영란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 '무산'

학인-조사단 몸싸움 특위, 21일 재조사키로

조계종 중앙총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특위 합동조사소위(위원장 영담)의 제1차 현장조사가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14일 오전 10시 김포학사에 도착한 총회위원 영담, 지홍스님과 교육원 교육국장 견진, 중앙승가대 법인처장 종석, 기획실장 성산, 총학생회장 대혜스님 등 합동조사단은 중앙승가대

학인 30여명에 의해 본관 감독관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몸싸움을 벌이다 3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무주스님 등 5명의 호법부 스님에 의해 해산됐다.

이날 학인들은 10분간만 면담 시간을 달려 영담스님에게 요구했으며, 영담스님이 이를 거부하자 학인들은 영담스님의 몸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중앙승가대 학인 대표들은 16일 오전 총회 사무처에서 영담스님과의 면담을 가졌다. 학인들은 이날 김포학사의 조

속한 이전과 14일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학인들에 대한 조사는 호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 학교 대자보를 통한 성명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공인으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법부는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일단 성명서 발표와 합동조사 저지의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으며, 특위의 합동조사는 21일 오전 10시에 김포학사에서 속개된다.

김재경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
정영스님, 서울지법에

정화개혁신회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자격 부존재확인 소송을 14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정영스님은 소장에서 △정대스님은 98년 11월 14일 당시 월하종정에 의해 해산된 총회에서 개정된 총무원장 총무원장 선거법에 근거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회원을 개정된 144회 임시총회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운 기자

"사미의제 미착용학인 구족계 자격 1년유급"
조계종 교육원 공문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6일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은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학인 전원(43명)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원은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은 예비승 전원은 구족계 수지 자격을 1년 유급한다"면서 "다만 21일까지 예비승 의제를 착용, 승가대운영위원장(주지)과 학장의 확인을 득한 보고서를 보내 올 경우 징계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만평
박구원

설득하기 힘들어...

중앙승가대학교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라"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비고
			정원비 40% (대교과출신)	정원비 (재외국민등)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72명	48명	2명	122명

※특차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이 가능하여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장 소: 본교 교학처
■교부기간: 99. 12. 13. ~ 12. 31.
■접수기간: 99. 12. 28. ~ 12. 31.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석 및 중요과목 성적 기록 및 작성교직원 서명 또는 날인후 테이프 부착
(2)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0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4)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특별전형 지원자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출연증명 확인서 첨부
(6)주민등록 등본 1부
(7)사진 (오조가사 수한 반영함판 3×4Cm) 5매제출 (3매 원서부착 2매별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2)전형료: 60,000원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2000. 1. 25. (화)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 (일반전형): 2000. 1. 25. (화)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정: 2000. 1. 25. 12:30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핀 입생 모집요강

계열구분	학년	전산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3명
		23	역경학과	19명
		33	포교사회학과	13명
	3학년 (학사편입)	43	사회복지학과	1명
		14	불교학과	6명
		24	역경학과	
34	포교사회학과			
44	사회복지학과			

※2학년 편입을 1999학년도 2학기부터 모집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격
○ 일반편입: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민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이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남 민2년 이상인 자
※ 타종단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가능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음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 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02)925-5507 (내선 202~5)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